

## 동북아시아 부패 관련 연구 동향에 관한 비교 분석

: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garding Corruption in Northeast Asia

: Focusing o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이 구(Lee Gu)\*

### ABSTRACT

First of al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earch trends on corruption in Northeast Asia. Based on this, basic research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each country. In particular,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ve a common point as countries that are maintaining or have maintained a socialist system. In the future, wh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changes,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North Korea will follow the model of China or Russia.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t will move toward a direction of accepting a market economy while maintaining a socialist system like China, or a direction of shifting both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like Russia. In preparation for this, it was intended to study the current corruption issues by country in Northeast Asia and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domestic research trends on corruption.

As the first research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research trend by research period is a subject that is constantly being studied, although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research volume by year is not constant. Second,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by country to be studied, the most research on corruption is being done regarding the Chinese corruption case. Third, research trends by content of research include various studies on administrative bureaucracy, economic, and social corruption in North Korea and Russia, while many studies on corruption in administrative bureaucracy, politics, and institutions have been conducted on China. As a result of research trends by research method, both mixed and qualitative studies were extensively conducted.

Based on those findings, this thesis aimed at drawing questions and solu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orruption problems i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This is because, in order for North Korea to develop as a normal state in the future, the issue of corruption is an immediate task that must be resolved. Based on these preceding studies on corruption in Northeast Asia, I hope that corruption studies that can support academic and public-private activities will continue to be conducted.

Key words: Northeast Asia, North Korea Corruption, Russia Corruption, China Corruption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동북아학과 박사수료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였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인 북한, 중국, 러시아에 관한 부패 연구 동향에 관한 비교 분석과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부패에 관한 동북아 지역 내의 기존 국내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재구성 할 것이다. 향후 통일준비의 실질적 연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동북아 지역 내 부패연구에 관한 선행연구의 연구 동향 및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책과 앞으로의 부패와 관련한 심층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 배경의 기본적인 취지이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 및 여러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패는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난 계기가 된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체제의 자연적인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위기의 봉착과 해결을 반복하는 자본주의체제와는 다르게 성장둔화의 위기로 이어졌다. 경제구조의 경직성에서 발현된 공급부족과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많은 붕괴 원인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소비재와 그 이외의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소유이면서 국정 가격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의 경제는 경제력과 권력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또한 권력은 부여받아야 하지만 경제력은 노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계획경제 행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력 확보에 큰 열의를 갖게 되며 이는 시장경제 구성원보다 더 큰 열의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은 부패 발생 요인들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의 낮은 보수, 취약한 제도적 환경 등의 경제적 지대 추구라는 동인과 연결되게 된다. 사회주의 체제의 통제구조와 철저한 명령은 부패 방지를 위해 좋은 요건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확산되기도 쉬운 조건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외부 교류가 적을수록 부패라는 관행이 조직의 비공식적 제도로 대체되기도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취약한 구조적 모순은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요인이 되어 체제전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2013이근영).<sup>1)</sup>

향후 북한 또한 정치 또는 경제체제가 전환되었을 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모델을 따르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중국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방향과 러시아와 같이 정치와 경제체제를 모두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현재 동북아지역의 각 국가별의 부패문제를 잘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체제전환이 될 상황이 발생할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모델 중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

1) 이근영(2013). 북한의 부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갈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향후 정상적인 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부패문제는 결국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 부패 관련 연구의 동향과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현실적인 문제와 변화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각 국가별 부패에 관한 연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에서 시작한 만큼 국가별 부패 관련 국내연구를 일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관련 주제에 대해 기존 부패연구의 방대한 데이터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재구성한 자료는 향후 남북한 통일문제와 부패 관련 분야의 심층연구의 촉매제가 되리라 기대한다.

## 2. 연구 문제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부패에 관한 국내 연구가 어떤 주제 및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앞으로의 부패에 관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동북아시아 부패 관련 연구 시기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동북아시아 부패 관련 연구 대상 국가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동북아시아 부패 관련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동북아시아 부패 관련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 Ⅱ.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동북아시아 부패와 관련하여 수행된 모든 국내 학위논문과 국내 등재 후보 이상의 학술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학위 논문의 경우 국내 대학의 석·박사 논문이며, 학술논문은 ‘한국부패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논총’ 등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실린 논문으로 하였다. 검색된 자료 중 학위 논문과 동일한 제목과 저자로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만을 분석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의 자료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학술교육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박진환(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의 시장경제를 더 많이 참고할지에 대한 의문과 현재 시장경제로 전환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문제인 부패문제가 현재의 북한에서 일어나는 부패 문제의 방향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색을 위한 주제로 ‘동북아 부패’, ‘러시아 부패’, ‘북한 부패’, ‘중국 부패’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부패와 관련된 내용은 정치적인 부패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부패와 관련된 연구를 모두 선정하였다. 최종 분석대상 선정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차에서는 ‘동북아 부패’, ‘러시아 부패’, ‘북한 부패’, ‘중국 부패’를 차례로 검색하여 검색되어진 논문 중 ‘동북아’, ‘러시아’, ‘북한’, ‘중국’, ‘부패’단어가 직접적으로 포함되고 ‘부조리’, ‘뇌물’ 등 부패와 유사한 용어는 포함하였다. 학술대회발표용 논문과 포스터 발표, 기초강연 논문, 등재지 후보나 등재지가 아닌 학술지 등을 제외하여 1996년도를 시작으로 2020년도에 이르기까지 국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 95편과 학술지 논문 205편으로 총 300편의 논문을 1차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차에서는 논문제목, 핵심어, 연구문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겹치는 논문은 학술논문에서 제외시키고, 본문 확인이 어려운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학위논문 76편과 학술논문 122편으로 총 198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3차에서는 198편의 본문내용을 살펴보고, 부패와 관련되지 않은 논문 30편을 제외한 66편의 학위논문과 102편의 학술논문 총 168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

국내에서 발표된 부패관련 학위논문, 학술논문 중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과 관련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종합·해석하는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부패와 관련된 제목(주제)로 나타난 논문 142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논문의 연구시기, 연구 대상국가, 연구 내용,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 시기 분석기준 선정

연구 시기에 따른 연구 동향 분석은 2020년 5월까지 발행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논

문을 대상으로 각각 범주별 연구논문을 1996년부터 2005년에는 5년 단위로 묶어서 분류하였으며 2006년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연구는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 2) 연구 대상 국가 분석기준 선정

연구대상국가 분석 기준은 선행연구(박진환, 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북한이 체제 전환 될 경우 나아갈 수 있는 주 모델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대상국가인 북한, 러시아, 중국은 한편의 논문에 2개의 국가 이상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 복수처리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 내용 분석기준 선정

연구 내용 분석기준은 선행연구(김영중, 2006, 김용철, 2004)의 연구 내용 분석기준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동향은 정치, 행정(관료, 기관, 구조), 정책, 경제, 사회, 기타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한편의 논문에 두 가지 이상의 연구주제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주제를 확인하여 복수처리 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의 자세한 세부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내용 세부기준

하위 범주	세부 기준
정치	독재정권, 정경유착, 당 정권 부패
관료	관료의 재량권 남용
행정	기관
	기관의 독립성 부족
구조	행정통제의 미비와 결함
제도	반부패정책의 미비, 부패범죄 처벌의 미약, 전통적인 문화
경제	생산, 분배, 소비 등의 경제 활동 불안정, 기업 부패, 세무 부패
사회	부패개념정립의 모호, 가치관 혼란, 범죄조직 관련 부패 권위주의적 사회문화, 시민의식

## 4) 연구 방법 분석기준 선정

연구 방법 분석기준은 선행연구(김영중, 2006)의 연구방법 분석 기준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선정한 연구방법 분석기준은 북한연구 전문가 1인과 부패연구 전문가 1인과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이론연구, 양적연구, 사례연구, 비교연구, 질적연구로 분류하였으며, 한편의 논문에 두가지 이상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혼합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절차

동북아지역 부패 관련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북한연구 전문가 1인과 부패연구 전문가 1인과 함께 예비분석을 하였다. 대상논문은 이 논문의 연구대상 논문 중 무선으로 20편을 선정하여 분석 범주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분석자간 일치도는 산출공식인  $(\text{일치된 분석항목 수} / \text{전체항목수}) \times 100$ 으로 90%의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선행연구와 서적을 참고로 자료 분석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다시 10편을 선정하여 각자 분석한 결과, 일치도는 95%로 나타났다. 예비조사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분석 범주표를 기준으로 2020년 6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3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4. 자료분석

연구대상 논문은 자료 분석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분류한 후 SPSS 21.0을 이용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본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동북아 지역 부패 관련 시기별 연구 동향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1996년~2005년 20편(12%), 2014년 18편(11%), 2017년 16편(10%), 2008년 14편(8%), 2011년 12편(7%), 2019년 12편(7%), 2015년 10편(6%), 2018년 10편(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행된 학술지 102편(61%), 석사학위논문은 총 46편(27%), 박사학위논문 20편(1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 부패 관련 연구는 학술지가 61%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도별로 연구량의 증감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임

을 알 수 있다.

〈표 2〉 연구시기에 따른 연구 동향

하위 범주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빈도)
학술지	14	4	1	12	2	5	12	4	7	8	5	5	9	4	9	1	102 (61)
석사 학위	4	1	0	1	4	2	0	0	3	10	3	5	6	4	2	1	46 (27)
박사 학위	2	0	3	1	1	1	0	1	1	0	2	2	1	2	1	2	20 (12)
합계 (빈도)	20 (12)	5 (3)	4 (2)	14 (8)	7 (4)	8 (5)	12 (7)	5 (3)	11 (7)	18 (11)	10 (6)	12 (7)	16 (10)	10 (6)	12 (7)	4 (2)	168 (100)

## 2. 동북아 지역 부패 관련 대상 국가별 연구 동향

연구대상 국가를 북한, 러시아, 중국으로 분류하여 연구시기에 따라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연구 대상 국가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18편(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 29편(17%), 러시아 25편(1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국가별 연구시기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은 2014년 13편, 2017년 13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러시아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5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한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4편, 2013년 4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연구 대상 국가별 연구 시기 동향

하위 범주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빈도)
북한	4	2	2	2	0	1	2	1	4	3	2	2	1	1	1	1	29 (17)
러시아	5	1	0	3	2	3	2	3	1	2	1	0	2	0	0	0	25 (15)
중국	11	2	2	9	5	6	10	1	6	13	7	10	13	9	11	3	118 (68)
기타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1)
합계 (빈도)	20 (12)	5 (3)	4 (2)	14 (8)	7 (4)	10 (6)	15 (9)	5 (3)	11 (6)	18 (11)	10 (6)	12 (7)	16 (9)	10 (6)	12 (7)	4 (2)	173 (100)

### 3. 동북아 지역 부패 관련 내용별 연구 동향

연구대상 국가에 따라 연구내용 별로 분류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연구대상 국가별 연구 내용의 동향을 살펴보면 정치 관련된 내용이 43편(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에서 관료와 관련된 내용이 31편(17%), 정책 30편(17%), 사회 24편(13%)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정치 관련 연구가 3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도 관련 연구가 28편, 행정에서 관료와 관련된 내용이 22편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행정에서 관료와 관련된 내용이 8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 7편, 사회 7편, 기타 6편 순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행정에서 관료와 관련된 내용이 5편, 경제 5편, 사회 5편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 대상 국가별 연구 내용 동향

하위 범주	정치	행정			제도	경제	사회	기타	계 (빈도)
		관료	기관	구조					
북한	2	8	1	4	4	7	7	6	39 (21)
러시아	2	5	0	0	0	5	5	1	18 (10)
중국	38	22	3	3	28	10	12	4	120 (67)
기타	1	0	0	0	1	0	0	1	3 (2)
합계 (빈도)	43 (24)	35 (17)	4 (2)	7 (8)	33 (17)	22 (12)	24 (13)	12 (7)	180 (100)

### 4. 동북아 지역 부패 관련 방법별 연구 동향

연구 대상 국가별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연구 대상 국가별 연구 방법의 동향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가 86편(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2개 이상의 연구방법을 사용한 혼합연구가 69편(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 대상 국가별 연구 방법 동향

하위 범주	이론	양적	사례	비교	질적	혼합	계 (빈도)
북한	0	0	2	1	6	20	29 (17)
러시아	0	0	2	1	4	18	25 (15)
중국	2	1	4	5	75	31	118 (68)
기타	0	0	0	0	1	0	1 (1)
합계 (빈도)	2 (1)	1 (1)	8 (5)	7 (4)	86 (50)	69 (40)	173 (100)

## IV. 결론

###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내 부패에 관한 국내 연구가 어떤 주제 및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부패에 관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의하여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동북아 지역 부패 관련 학위 및 학술논문 168편을 분석하고 도출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지역 부패 관련 연구시기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량이 증감이 일정 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북아 지역내 부패문제는 각 국가별 주요 쟁점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련 연구들은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패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동북아 지역 부패 관련 연구 대상 국가별 연구동향 결과 최근 중국 부패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시행됨<sup>2)</sup>에 따라 국내 연구자들의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상으로 보인다. 통일연

2) 각2012년 새롭게 출범함 시진핑 1기 지도부가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례없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2020):169

구원 평화연구실(2020)에서는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정책은 단순히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를 위한 일시적인 이벤트적인 것만이 아니라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전면적 개혁 심화라는 중국의 경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연구 내용별 연구 동향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행정관료와 경제, 사회부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김영민(2016)은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는 핵심 권력집단이 이익 배분구조의 결정권을 독점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고도의 독재체제에서는 정치적 이해구조와 경제적 이해구조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양 구조간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권력집단은 경제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거나 활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북한이 현재 내부적으로는 시장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적 모순 속에서 북한의 당간부에게 고도로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패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패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또한 행정관료와 경제, 사회 부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예병환(2013)은 러시아 정부의 시장경제 도입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유화 과정과 권력엘리트와 마피아와의 결탁은 기업 활동에서 업무의 편의와 시장독점 등을 얻어 내기 위한 뇌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체제전환 시기에 국유기업들의 사유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원칙에 적응하는 중 많은 영역의 지하경제, 부패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구체제의 유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부패현상은 기득권 계층의 저항과 경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경제, 정치적 불안정, 법률적 허점과 체계의 미비, 시민사회의 취약, 경제의 비효율성, 사회로부터의 권력 소외 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시장경제 도입과정과 기득권 계층의 부패가 공공연히 일어나 경제, 사회 관련 부패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련성에 대해 향후 북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 국영기업들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기득권의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행정관료와 정치, 제도와 관련된 부패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의 권력이 공산당에만 집중된 구조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재(2018)는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라는 절대 권력 하에서 관료사회를 중심으로 한 부패 발생은 필연적으로 봤다. 또한 반부패 정책 또한 현재의 권력자가 정적을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보면 북한 또한 공통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이를 견제하기 힘든 사회구조상 이러한 관료부패는 필연적이며 이러한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국가들의 해결방안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북아 지역 부패 관련 연구 방법에 대한 동향 결과 혼합연구와 질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부패와 관련된 연구는 사회적 현상이나 사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질적연구나 문헌연구를 포함한 혼합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례접근법 등의 질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체제전환은 동북아시아 부패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연구 성과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2000년을 기점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로 러시아·중국 등과 같은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사유화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급진적 체제 전환을 하여 완전한 사유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완전한 시장경제로의 가격정책을 실시하였다(조규진, 2009). 이에 반해 중국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기업의 제한적 개인 소유에 대해 인정한 상태로 점진적 시장경제의 가격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러시아, 중국의 체제 전환 시기에 기업 사유화나 제품의 가격 변환 등의 상기한 체제전환 과정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기업사유화와 체제전환의 역사적 배경이 연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남북한 통일문제에서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기업사유화와 관련한 부패의 문제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부패문제를 함께 고려한 연구들의 출현은 2010년에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북한체제에 대한 논의를 정치와 경제의 분리된 논의보다는 부패를 바탕으로 둔 경제의 논의 혹은 경제 현상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기준으로 많은 연구주제들과 연구들이 다변화 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구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와 문헌조사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한계는 연구자의 연구 방향과 맞는 것일 수 있지만 학문적인 깊이가 덜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계량적인 분석방법이 점차 적용되는 오늘날 관련 연구가 학계를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언뿐만 아니라 학문적 가치에도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부패를 포함한 연구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 통일 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기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관련 연구 자료 수집 또한 현실적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깊이까지 담보하 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주제와 연구방향을 병행하려는 양자균형적인 연구경향이 양적으로 상당히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양한 이론적 검토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연구의 질적 수준이 심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형성된 기초자료는 다양한 학문 간의 융복합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통일연구에서 부패 연구분야의 학문적 가치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 2. 제언

부패 분야는 역사를 포함한 인문 및 사회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발전한 학문영역인 만큼 역사적 고증에 의해 발굴된 자료와 다양한 학문적 연구방법을 기초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향후 통일연구 관련 부패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 넘어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부패 연구 분야에서는 계량적 분석방법이 기존 연구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패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계기가 될 것이며 정책적 제언으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동북아지역내 25년간의 부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부패 연구분야에서 학문적으로도 진행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였다. 동북아 지역내의 부패와 관련한 이러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학계와 민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패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영종(2006), 부패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질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 11(1), 1-21.
- 김용철(2004),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 한국부패학회, 9(3): 67-81.
- 김영민(2016), 북한의 부패 실태 및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시장화-약탈성-부패의 매커니즘, 세계지역연구논총 34(4): 283.
- 김현재(2018), 중국과 베트남의 관료부패 사례와 원인에 대한 연구, 중국학, 65: 338.
- 박진환(1999),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경제 비교, 농협대학 농촌개발연구소, 123: 7-8.
- 이근영(2013), 북한의 부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예병환(2013), 러시아 사유화 과정과 부패현상. 한국시베리아 연구, 17(1): 34.
- 조규진(2009), 체제전환국가들의 기업사유화 및 제품가격변환 과정에 대한 서술적 비교연구. 한국경영사학회, 113-136.
-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2020), 중국 시진핑 시기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함의. 현대중국연구, 21(4): 170.

투고일자 : 2020. 09. 10

수정일자 : 2020. 09. 19

게재일자 : 2020. 09. 30

## &lt;국문초록&gt;

## 동북아지역 부패 관련 연구 동향에 관한 비교 분석 :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구

본 연구는 우선 동북아지역내 부패에 관한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는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동북아 지역내 북한,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였던 국가로서 공통점을 가진다. 향후 북한이 정치와 경제체제가 전환되었을 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모델을 따르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중국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이나 러시아와 같이 정치와 경제체제를 모두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현재 동북아지역내 국가별 부패문제를 연구하고 부패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시기별 연구 동향은 연도별로 연구량의 증감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 국가별 연구동향 비교분석 결과 중국의 부패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연구 내용별 연구 동향은 북한과 러시아는 행정관료 및 경제, 사회부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중국은 행정 관료 및 정치, 제도 부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행정관료와 관련된 부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 방법별 연구동향 결과 혼합연구와 질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부패문제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향후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부패문제는 결국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지역내 부패와 관련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계와 민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패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동북아지역, 북한 부패, 러시아 부패, 중국 부패